

코스피	2520.36	코스닥	693.15
	(-13.98)		(-3.68)
금리 (미국 9년)	2.773	환율 (원-달러)	1399.75
	(0.000)		(-2.45)

“코스피 상장이요? 나스닥 갑니다”... IPO도 국내 외면

(기업공개)

국내 유망 기업들, 미국 증시 노크
비바리퍼블리카, 나스닥 IPO 추진
셀트리온홀딩스·야놀자 등도 준비

최근 국내 증권시장 대신 미국증시(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이탈과 함께 유망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행렬이 국내 증시의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최근 나스닥 IPO를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을 상대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주관사 선정에 돌입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쿠팡(뉴욕증권거래소)’, ‘네이버 웹툰(나스닥)’의 상장 이후 최근들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토스 외에도 ▲셀트리온홀딩스 ▲오에스알홀딩스 ▲야놀자 등이 나스닥 입성을

준비 중이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좋은 기업들이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한국 증시의 자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내 한 증권사의 IPO를 주관하는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토스가 미국 증시 입성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국내에서는 10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증권학회 회장)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은 수익에 비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주는 시장”이라며 “최근 한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기업들이 미국 증시 진출로 눈을 돌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이 교수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들도 자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금 조달 사정이 좀 더 나은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다”며 미국 증시 상장 자체가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라고도 봤다. 미국 상장의 장점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유동성에 따른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는 점과, 기업 가치 상승 및 인지도 증가, 글로벌 홍보 효과 등을 꼽았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상장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 과정 자체가 ‘혼란기’에 있다”며 “국내 IPO 시장 침체는 아무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주관사가 기업평가를 적절히 잘 해내도 상장 당시 시장상황에 주가 움직임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관사가 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최적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있어도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2024년도 중부세 납부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중부세 고지서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전 보다 소폭 상승했다. <관련기사 4면> /뉴스1

‘트럼프시대’ 韓경제 파장

美, 멕시코·加 25% 관세... 韓 산업계 타격

트럼프 고율 관세정책 부담 확산
현대차, 멕시코 생산수 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의 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피해가며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긴장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뉴스1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타닐 문제로 해당 국가에 관세를 예고했지만 향후 미중 무역갈등의 시작을 예고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

업계의 부담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LCD와 LED 등을, LG전자는 TV와 냉장고, 오븐 등을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기아와 포스코 등도 자동차와 철강재를 생산하는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벌비스 등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생산 공장도 멕시코에 위치해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멕시코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대규모 수출하는 만큼 관세 면제 혜택을 폐기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관세 적용 규모 등을 보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플랜트 캐파 증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 증산을 통해 방어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는 중국 내 IT 기업들이 관세폭탄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시장 수요 부진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김서현·차현정·이혜민 기자 ysw@

불확실성 우려에 소비자심리도 뚝

11월 CCSI, 전월비 1.0%p 하락
향후경기전망 1년 만에 최저 수준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한달 전과 비교해 1.0%포인트(p)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10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4)이 7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경기판단(70--3p)과 생활형편

전망(94--2p)도 전월보다 내렸다.

반면 현재생활형편(91)과 가계수입전망(100)은 각각 1p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109)은 전월과 같았다.

이달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줄었다.

주택가격지수는 109로 한달 전(116)과 비교해 7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앞으로 1년 뒤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것으로 100보다 낮은 것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조사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 가격상승세가 둔화해 주택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향후 1년 간의 물가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한달 전과 같았다. 소비자물가상승세가 둔화했지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탓이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0.1%p 하락했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2.6%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한동훈 겨냥 “내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셔야” /사진 뉴스1
▲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젠더나 세대 갈등 문제 아냐”

▲ 홍준표 “판사에 목맨 검사 정치 그만... 트럼프 보면 답 나와”
▲ 민주, 김건희 특검 재의 요구 “이승만 전철 밟을건가”



▲ 추경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사진 뉴스1
▲ 개혁신당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약속에 책임져야”